

대한정밀, 탄산바륨 수출 적극화

91년 생산량 4만여톤중 일본·싱가폴 등에 1만톤 수출

대한정밀화학(대표 심세진)이 91년에 4만5000톤의 탄산바륨(BaCO_3) 및 탄산스트론튬(SrCO_3)을 생산, 일본아사히글라스 및 일본전기초자 등 동남아시아에 총 1만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정밀화학은 90년 4월 5만톤 규모의 탄산바륨 및 탄산스트론튬 공장을 완공한 이후 91년들어 본격가동에 착수, 4개월씩 교대생산해 탄산바륨 2만2000톤, 탄산스트론튬 2만3000톤 등을 생산, 탄산바륨은 로칼 2만톤, 수출 7000톤 등 총 2만7000톤을 판매했고, 탄산스트론튬은 로칼 1만7000톤, 수출 3000톤 등 총 2만톤을 판매했다.

<표> 1991년 대한정밀화학 탄산바륨·스트론튬 판매실적

(단위:톤)

구 분	생 산	판 매		
		로 칼	수 출	계
탄산바륨 (BaCO_3)	22,000	삼성코닝:16,000 한성전기고자:3,000 기타:1,000(구판용)	7,000	—
	소 계	20,000	7,000	27,000
탄산스트론튬 (SrCO_3)	23,000	삼성코닝:15,000 한성전기고자:2,000	3,000	—
	소 계	17,000	3,000	20,000
총 계	45,000	37,000	10,000	47,000

대한정밀화학은 91년 수출물량 총 1만톤중 탄산바륨의 경우 일본전기초자에 40%, 일본 아사히글라스에 40% 등 주로 일본지역에 80% 이상 수출했으며, 나머지는 싱가포르의 아사히테크놀로지비전에 10%, Picuue에 10%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산스트론튬의 경우 아사히글라스에 약 75%를, 아사히테크놀로지비전에 15%, Philips(네덜란드)에 10%를 수출했다.

로칼판매는 삼성코닝에 1만6000톤, 한성전기고자에 3000톤을 판매했다. 탄산바륨은 주로 TV브라운관용 Bulb glass로 사용되며 그외 Brick, Tile, Pottery, Frit 등에 사용된다.

탄산스트론튬 역시 삼성코닝이 1만5000톤, 한성전기고자가 2000톤을 구입했으며, 거의 전량이 Bulb glass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대한정밀화학은 파우더타입의 페라이트(Ferrite)용 생산은 실현하지 못했는데, 이는 입도조건(spec)이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정밀화학은 올해에 탄산바륨과 탄산스트론튬을 각각 3만톤, 2만톤씩을 생산, 1만3000톤 정도를 수출할 계획이며, 향후 탄산바륨과 탄산스트론튬의 판매를 1:1로 맞춰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1992/3/1>